



강봉용 본부장에게 듣는
전북지역본부의 미래

열정, 노력, 소통의 힘으로 내일을 열어가다

지난 3월 단행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친환경부품소재센터가 전북지역본부로 승격했다. 특히 전북지역본부는 대표적 농도지역이라는 지역특색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농기계 분야 거점센터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기에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전북지역본부. 강봉용 본부장을 만나 그 희망찬 미래 청사진을 직접 들어보았다.

Q. 친환경부품소재센터가 전북지역본부로 승격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생기원은 천안본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지역의 특화전략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고유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2006년 센터 설립 후 전북지역본부로 승격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전북이 대표적 농도지역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생명을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추구하는 만큼,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대표 거점센터로서 전북지역본부의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분야에서는 전북지역본부가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전북지역본부를 혼, 창, 통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북지역본부장이 된 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감명깊게 읽었던 <혼창통(魂創通)>이란 책이었습니다. 우리 본부에도 이 혼, 창, 통을 적용시켜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혼이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연구원 개개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을 뜻합니다. 연구원들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선 노력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수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은, 앞선 혼과 창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직원들 간에 서로의 열정과 노력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